

‘백종원 매직’ 강진·장성으로... 지자체, 상권 살리기 나섰다

‘예산시장 부활’ 이끈 (주)더본코리아와 상생발전 양해각서 체결 강진군, 더본 분원 유치 창업 지원...장성군, 5대 맛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회복을 꿈꾸는 전남 자치단체들이 유명 외식 전문가와 손잡고 ‘맛’ 승부수를 던졌다. 강진군과 장성군은 충남 예산시장의 부활을 이끈 외식 전문가 백종원씨와 손잡았다. 강진군·장성군은 최근 백종원 (주)더본코리아 대표와 충남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상생발전 양해각서’를 맺었다. 우선 강진군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강진 분원을 유치해 외식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상권 회복의 구심점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강진읍시장과 오감통 먹거리타운 등 상가에 대한 지원을 벌이고, 강진읍 상권 전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강진군은 강진읍내 오감통을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 쉴거리가 있는 오감만족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방침이다. 강진읍시장 인근에 있는 오감통 공연장과 음악 창작소를 연계해 음악·문화예술 분야의 뒷받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지난 2월 유명 요리사인 이원일씨와 협업해 ‘강진 한우 육회 떡볶이’와 ‘강진 한우 표고 육전 덮밥’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장성군은 (주)더본코리아와 ‘장성 5대 맛거리’ 조성 및 원도심 공동화 방지에 힘쓴다. 또 장성에서 나는 청정 농특산물로 만든 음식을 개발하고 외식업 전문가 상담, 교육을 지원한다. 5대 맛거리 조성은 민선 8기 장성군 공약사업이다. 장성호 하류 미락단지를 포함해 권역별 5개 거리를 지정하고 장성만의 특화된 음식을 선보일 방침이다. 장성군은 중앙 정부·전남도 공모사업을 유치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강진군·장성군, (주)더본코리아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역을 홍보하고 축제 등과 음식을 연계한 관광 상품화에도 나선다. 백종원 (주)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자신의 고향인 충남 예산군과 예산시장에서 ‘예산



장성군·강진군은 백종원 (주)더본코리아 대표와 최근 충남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강진원 강진군수와 백종원 대표, 맨 오른쪽은 김한중 장성군수. <장성·강진군 제공>

형 구도심 지역상생’ 사업을 펼쳤다. 올해 1월 재개장한 예산시장은 지난달까지 누적 방문객 165만명을 넘기며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장으로 거듭났다. 강진군과 장성군은 지난 3월 (주)더본코리아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 ‘예산시장 벤치마킹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도로명 주소 이용·지적 재조사 동참을”

담양군, 연휴 기간 전통시장 찾아 홍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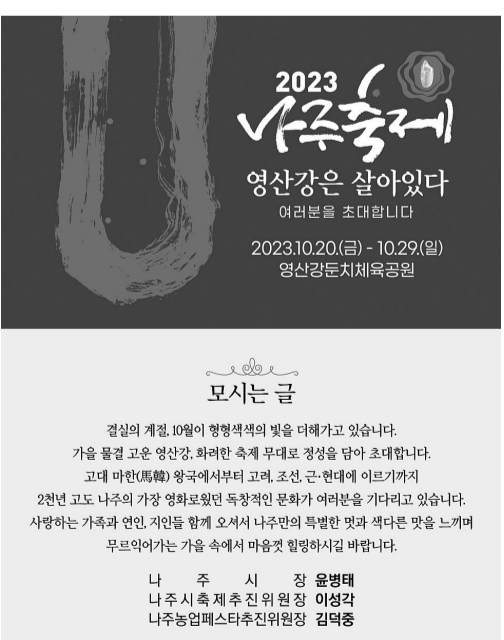
담양군이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등을 찾아 도로명 주소 이용 활성화와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은 도로명 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에서 홍보 활동을 벌였다. 담양군 직원들은 지역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와 지적 재조사 홍보를 했다. 도로명 주소를 쓰자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우리 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행사를 벌여 올바른 도로명 주소 표기 방법을 알렸다. 또 ‘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 제도’의 하나인 사물 주소와 기초번호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홍보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시장 방문객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담양군은 장평면 장평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정착과 지적 재조사사업은 많은 주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실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모바일 축제 초청장 호평

앱 연동 편의성·접근성 높여 링크·공유 버튼으로 확장성 넓혀



나주시가 ‘2023 나주축제, 영상강은 살아있다’ (이하 나주축제) 초대장을 기존 인쇄물과 함께 모바일로도 발송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축제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영산강둔치체육공원(영산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휴대폰으로도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가 개발한 모바일 초청장은 강렬한 색상의 포스터와 모시는 글·축제 핵심 프로그램·주차장 등이 한눈에 알기 쉽게 배치되었다. 특히 초대장 하단에는 나주시 관광과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처와 길찾기 앱을 연동해 축제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으며 축제 비하인드 스토리와 재밌는 홍보 영상 등을 만나볼 수 있도록 공식 블로그 링크 버튼도 함께 배치했다. 또 분인이 받은 초청장을 지인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공유 버튼도 있어 확장성도 키웠다. 초청장 전달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가능하다. 나주축제 모바일 초청장은 나주시 및 나주문화관광 홈페이지 내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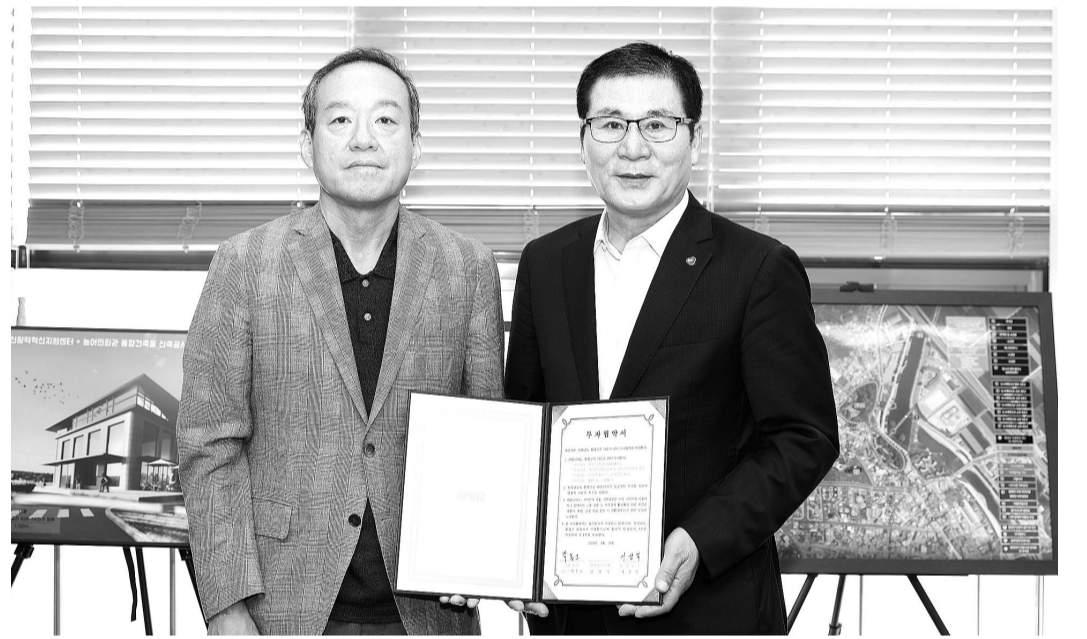
‘2023 나주축제, 영상강은 살아있다’ 모바일 초청장 모습. <나주시 제공>

나주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보다 손쉽게 전파할 수 있는 모바일 초청장을 개발했다”며 “모바일 초청장은 인쇄물에 비해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함평군, 고무바닥재 제조회사 30억 투자 유치

(주)플러버와 투자 협약 시트형탄성포장재 공장 신축

함평군과 (주)플러버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최근 고무바닥재 전문 제조회사 (주)플러버와 3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플러버는 동함평산단 부지(7640㎡)에 실외 스포츠바닥재로 이용되는 시트형 탄성포장재와 실내용 상업용 고무바닥재를 생산하는 공장(1976㎡)을 신축한다. 플러버는 생상품 모두 조달형 우수제품으로 인증돼 전국에 납품되고 있으며 특허 보유 11건을 비롯, 미국UL 친환경인증 등 실내외 고무바닥재 전문 제조회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연간 1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지역 인재 채용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우리 군에 투자를 결정해



이상익(오른쪽) 함평군수와 박종오 플러버 대표가 상생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준 플러버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군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상인·지역민 ‘어울림 한마당’

천관산관광시장 상인회, 주민 화합 행사...노래자랑·경품 추첨 등

장흥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관산을 옥당리 천관산관광시장에서 ‘주민 화합 행사’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관산을 천관산관광시장 상인회(회장 강태욱)는 시장 상설무대에서 주민 화합 행사를 시장 상인과 지역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자치 활동과 축하공연, 주민참여 즉석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한국서예협회 장흥군 지부(지회장 위성태)의 서예작품 전시와 짚공예 작품 전시도 열렸다. 지역민들이 참여한 짚공예는 장흥군의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장흥 남부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천관산관광시장은 현대화사업을 벌여 지난 2010년 7월 다시 장을 열었다. 전통시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며 공연장과 수산물센터, 공연장 등 현대화 시설을 갖췄다. 장흥에서는 정남진장흥도요시장과 천관산관광시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꼽힌다. 시장 곳곳에서는 수산물센터, 상설 점포 등 총 38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천관산관광시장은 남부지역 5개 읍면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수산물과 가공 식품을 저렴한 가격

에 판매하고 있다. 가을이면 인근 득량만과 천관산의 풍경을 만끽하고 싱싱한 수산물을 즐기 위한 방문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천관산관광시장에서 직선 300m 거리에는 관산공용버스터미널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지난 2016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공모한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돼 청년 상인 창업지원, 정보통신기술 전통시장, 점포대학 부문 지원을 받게 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기념행사가 주민 화합은 물론 천관산관광시장과 관산읍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 시설개선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장 상인들이 친결과 품질에 책임을 다한다면 이번 행사는 천관산관광시장이 재도약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경찰-모란로타리클럽 학폭 예방·유해 환경 점검

강진경찰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합동 활동을 벌인다. 강진경찰은 최근 강진경찰서 목민관실에서 강진모란로타리클럽과 ‘공동체 치안활동·불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권석진 강진경찰서장과 이애영 강진모란로타리클럽 회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 점검 등 합동 활동을 할 방침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권석진(앞줄 왼쪽 세번째) 강진경찰서장과 이애영(앞줄 오른쪽 세번째) 강진모란로타리클럽 회장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